



## 진도군-씨월드고속훼리(주)-진도교육지원청 '지역 일자리 창출' 앞장 지역 인재 채용 협약을 통한 일자리 협력 체계 구축

진도군이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씨월드고속훼리(주)-진도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채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이종훈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이사, 오미선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진도 출신 청년 취업에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정보·방안 공유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에도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지난 3월 진도항과 제주 애월항을 잇는 항로 개설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신규카페리 취항을 앞두고 있다.

신규카페리는 승객 600명과 화물차 40대, 승용차 100대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으로 취항에 따른 현장 인력 등 대규모 채용이 예상된다.

또한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지난해 진도-제주 구간 쾌속카페리 취항에 따라 진도 출신 지역 인재 4명을 채용,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주) 관계자는 "신규카페리가 취항하면 청년 고용 창출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진도가 전남 서남권의 관광·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진도 지역의 학생들이 내 고장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해 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고민으로 진도에서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기업에는 맞춤형 우수 인재를, 청년에게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 장흥군, '2023년 어린이 영양마을 튼튼놀이터' 운영

장흥군은 지난 10월 30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의 소아 비만 예방과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어린이 튼튼캡 영양마을 튼튼놀이터'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 3세~5세 30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과 놀이를 통해 당 저감화, 편식예방 및 또래 관계 형성과 협동심 유발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위생놀이(세균막대를 뛰어넘는 게임) ▲영양놀이(쌀로 만든 호떡 뒤집기 놀이) ▲편식NO놀이(단편이 아주머니 인터뷰) ▲소화놀이(에어바운스 게임)로 구성됐다.

참여한 어린이들과 인솔 교사들은 신나고 유익한 건강 프로그램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장흥=김도영기자

## 해남군 올해 출생아 증가, 적극적 출산정책 효과 특출

### 출산에서 보육까지 통합 지원, 지역주민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해남군의 올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총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10월 말 기준 해남군의 출생아는 총 2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총 출생아 수 216명을 넘어선 숫자이다.

이는 민선8기 출산정책의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인구정책을 적극 펼쳐온 결과로 해남군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40개 사업에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 8월 출산정책을 총괄하는 출산장려 조직을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로 체제 전환하여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까지 한번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로 등록되면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임신 및 출산지원 정보를 단계마다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단계에서는 임신 계획에서부터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9개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하는 정부형 난임시술비를 군비를 추가 편성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최초의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생활을 돕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임신이 안전한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간에도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고, 2015년 전남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소한 가운데 지금까지 1,800여명의 산모가 조리원을 이용했다.

또한, 출산가정에 신생아양육비 지원,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아빠육아 휴직 150만원 지원, 육아정보를 나누는 엄마모임 운영, 출산장 건강회복 지원 등을 통



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출산가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개관한 땅끝가족아울렛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관내 병원의 소아과 야간진료를 추진함으로써 양육 기반을 탄탄히 갖추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전국적 추세속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정부 시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실제 해남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강진 만들기 박차

강진군은 지난 달 11일, '2024년 환경 분야 업무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강진 만들기 위한 내년도 계획과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군은 환경축산과 업무보고에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등 기반 시설 조성 ▲친환경차 보급에 대응한 충전 인프라 구축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 신속 해결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진 만들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도출했다.

민선 8기 강진군은 다양한 축제를 기반으로 한 관광객 유치로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다. 2023년 정자 축제 10만 명, 병영성축제 4만 명, 수국축제 1만 5천 명, 하백축제 4만 명, 갈대축제 12만 명 등이 다녀가며, 약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며 강진을 방문했다.

군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강진' 이미지 구축은 필수라는 생각으로 청결한 강진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10월 말 현재, 군에는 약 47개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탄소중립 실천이 글로벌 과제로 떠오르며,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를 필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 해양치유센터 체험객 만족도 ↑ '개관 전문의 쇄도'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군은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 군민, 기관·사회단체, 직원 등 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층 기본 프로그램은 '매우 만족한다'가 48.9%, '만족'이 41.1%, 2층 전문 프로그램은 '매우 만족'이 47.4%, '만족'이 40.8%로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센터 체험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입소문이 나 이용과 개관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층 명상 풀에서 진행된 수중 재활 운동인 '와츠'와 해조류 거품 테라피, 2층의 스톤 테라피와 해조류 머드 랩핑 테라피가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인기가 많았다.

특히 신지 명사실리의 모래사장과 바다가 보이는 팔라스폴의 전경은 마치 액자 속 바다가 담긴 듯해 힐링 스파트로 자리 잡았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